

광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광주시 0.3%·전남대병원 0.01%...의무구매량 턱없이 부족 재활시설·단체 생산품 판로확보 어려움...제도 개선책 필요

광주지역 공공기관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산갑)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량을 확인한 결과 법적 기준치에 턱없이 미달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의무구매 실적 0.3%에 불과하고, 전남대학교병원은 의무구매량에 턱없이 미달한 0.01%로

확인 돼 관내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보훈병원은 타 국립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의무 구매율이 떨어져 매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공기관 발주실적 집계에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산갑)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재차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김운갑 시설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구매비율이 저조한 편으로 우선구매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김 시설장은 또 "현재 광주시 29개의 직업재활 시설과 8개의 법인단체에서 825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상담, 판촉, 홍보, 개발, 조달,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이에 대해 이용빈 국회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남대학교 병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운갑 시설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인센티브 제도(포상금, 성과 평가 반영) 도입 등의 추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최근 광산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열린 2021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간담회에서 동아리 참여 시민들과 즐거운 활동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함께 즐기며 행복 찾기...문화 공동체 확산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가 행복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행복동아리가 같은 취미, 관심사를 함께 나누며 행복을 찾는 공동체 문화로 확산 되고 있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취미, 취향, 관심사를 가진 5인 이상의 모임, 공동체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시민행복동아리' 첫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뜨개질, 뮤지컬, 운동, 명상, 심리교육, 우쿨렐레, 재능나눔, 독서 등 10개 동아리를 선정했다.

동아리의 활성화를 통해 광산구는 행복정책을 제도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동아리의 활동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시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찾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산구는 올해 시민행복동아리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3월 총 79개 동아리가 공모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21개 동아리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려화분 제작, 오디오 크레에이터, 발효음식 '단술' 만들기, 손 드로잉과 티 소믈리에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활동이 해당 동아리를 통해 올해 한해 시민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시민행복동아리는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을 찾고, 주변과 나누며 공동체를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정책의 성공이 공동체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줄속 추진

김태완 구의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집행 과정 등 지적

광주 광산구가 추진한 수역원대의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줄속으로 추진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1일 광산구의회 제265회 정례회에서 김태완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가 본예산에 16억원을 상정해

의회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14억원이 확정 됐으나 이후 추경을 통해 7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에서 확정된 7억원의 사업비도 8900여 만원만 집행되고, 이월된 뒤 1억2300여만원은 아직도 불용액 상태라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또 해당 사업의 지원 비용을 놓고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 60면 기준 최고 8320여만원을 과다하게 집

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차장 개방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대책이 없는 만큼 이번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평가의 적절성 부분도 문제점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삼호 구정장은 "사업시행 초기 수요 예측 오류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정장은 또 "공유주차장 개방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이용률, 만족도 등을 분석해 개방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만보 걷고 경제 체험 "착한소비 전파"

광산구, 20개 사회적 기업 참여 '원데이클래스' 행사 성료

광주 광산구가 지난 19일 사회적 경제 원데이클래스 '7만보의 선물'을 진행했다.

소셜캠퍼스 온 광주(광주송정역 맞은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선 20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떡케이크 만들기, 캔들 만들기,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 클래스당 5인 이하로 숫자를 제한한 가운데, 400여 명이 총 96개 클래스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연과 SNS 체험하기 이벤트 등도 마련됐다. 광산구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시간대별로 방역소독도 실시했다.

'7만보의 선물'은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직접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광산구와 소셜캠퍼스

온 광주(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한, '워크온(걷기앱)'과 사회적 경제 콜라보 프로젝트다.

광산구는 지난 4월26일부터 5월9일까지 2주간 찰린지를 통해 7만보를 달성한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 '원데이클래스' 무료 쿠폰을 제공했다.

찰린지에 1000명이 넘게 참여하여 게시 6일 만에 준비한 쿠폰(400명분)이 전량 소진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원데이클래스 행사는 애초 5월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사회적 경제와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어, 착한 소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19일 '소셜캠퍼스 온 광주'에서 사회적 경제 원데이클래스 '7만보의 선물' 체험행사가 열렸다.

초등학생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코딩'

광주시립도서관, 3~4학년 15명 선착순 모집...7월 무료 진행

광주시립도서관은 "초등학생의 코딩 능력 향상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그래픽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코딩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무등도서관 사서와 함께 '엄마 자판기' 등 선정된 그래픽 4권을 읽은 후 교육용 보

드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그래픽 속 등장 인물 만들기, 스크래치 코딩, 스크래치와 기기를 연결해 음악을 연주하는 코딩 실습 등을 하게 된다.

강제는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 무료로 진행하며, 초등학생 3~4학년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정보도서관(613-7763)에 문의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문화행사-디지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